

실험실의 미친 과학자와 제국주의적 향수

— 1960년대 한국 고딕SF영화 연구

송효정*

1. 1960년대 한국형 SF로서의 고딕SF영화
2. 퇴행적 과학관과 제국주의적 향수
3. 좋은 과학과 나쁜 과학
 - 3-1. 투명인간: 신파멜로에서 계몽적 반공영화로
 - 3-2. 흡혈식물: 과물의 탄생과 악의 기원으로서 식민지 시대
 - 3-3. 미치광이 과학자: 억압된 것의 귀환과 가족주의
4. 실험실에서 우주로, 과학은 소년의 것

국문요약

한국영화사에서 ‘한국형 SF’라 특정할만한 범주화된 영화들을 선별해 내기란 쉽지 않다. 일단 제작된 SF영화의 수 자체가 상당히 적다. SF영화는 오랜 기간 동안 ‘공상과학영화’로 지칭되며 아동의 전유물로 간주되어 왔다. 이러한 분위기는 드물게 수행되었던 한국 SF영화 연구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이들은 1960년대에서 1970년대 초반에 이르는 SF영화의 특징을 ‘괴담·괴기’, ‘가족·아동용 SF’, ‘해외물 모방’으로 간단히 설명하고 만다. 이에 본 연구는 1960년대 등장한 한국 SF영화의 기원과 출현, 그리고 전개 과정에 관심을 둔다. 연구 대상은 한국전쟁 후 최초의 한국 SF영화로 알려진 〈투명인의 최후〉(이창근, 1960)를 시작으로 하여 1970년대 중반까지 등장한 ‘과학자 영화’들이며, 이를 변별적 장르

* 서울시립대, 시간강사

로서 '고딕SF영화'라 범주화할 것이다. 1950년대 미국과 영국의 B급 공포·SF 영화의 제작, 수입의 영향 하에서 한국에서도 새로운 SF영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초기에는 『투명인간』이나 고딕소설인 『프랑켄슈타인』, 『드라큘라』의 설정을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인기연극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1936)나 이광수의 소설 『개척자』(1918)에 등장하는 누아-오빠 서사나 연애삼각구도, 식민지 시대이래 형성된 소년 모험 서사, 식민지 시대의 원한 등의 요소가 혼합되어 한국적 고딕SF만의 특징을 구축해 나가게 되었다. 한편 한국의 고딕SF 영화에는 고딕소설이 빅토리아조에 대해 그러하듯이 과거(제국주의 시대)에 대한 향수와 복고적 회고가 반영되어 있기도 하다. 외딴 곳의 대저택에서 자행되는 미치광이 과학자의 학살의 실험에서 가까스로 빠져나온 젊은 남녀는 악한 아버지(나쁜 과학자)를 처단하고 선한 아버지(착한 과학자)의 승인 하에 새로운 가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러한 서사적 변화는 광포한 근대화를 경험하는 대중들의 불안이 점차 완화되고 과학적 계몽이 보편화되면서 점차 고딕SF영화의 불온성이 순치되는 과정과 맞물린다. 1967년에는 괴수가 등장하는 실사영화인 <우주괴인 왕마귀>(권혁진), <대괴수 용가리>(김기덕)이 등장한다. 1968년 <황금철인>을 시작으로 1970년대가 되면 <번개아템>(1971, 용유수), <로봇 태권브이>(1976, 김청기) 등 아동 SF 애니메이션이 본격적으로 창작되기 시작한다. 1970년대 중반 이후로는 심령과학을 다루는 영화들이 등장하는데, 이즈음 고딕SF영화는 호러 내지 오컬트물로 이행해가게 된다. 그렇기에 과학자가 등장하는 한국의 고딕SF영화는 1960년대 후반을 정점으로 한 1960년대적 장르였다.

(주제어: 한국장르영화, 고딕SF영화, 고딕소설, 투명인간, 흡혈동물, 미치광이 과학자, 식민지 시대, 제국주의적 퇴행, 광기, 억압된 것의 귀환)

1. 1960년대 한국형 SF로서의 고딕SF영화

한국형 SF영화의 독자성을 주장할 수 있을까. 이 글의 논의는 이러한 질문에서 출발한다. 한국영화사를 검토할 때 장르적 견지에서 ‘한국형 SF’라 특정할만한 범주화된 영화들을 선별해내기란 쉽지 않다. 일단 한국에서 제작된 SF의 수 자체가 타 장르에 비해 상당히 적다. 또한 SF영화는 오랜 기간 동안 ‘공상과학영화’로 칭해지면서 아동 대상 영화로 간주되어왔다. 대중들의 기억 속에서 괴수 혹은 거대로봇이 등장한다는 특징으로 범주화된 아동SF영화를 제외하고 해당 장르의 영화는 한국 대중들에게 매력적인 장르가 아니었던 것이다. 1960년대는 한국영화의 르네상스로 평가되며 멜로드라마, 사극, 코미디, 액션 스릴러, 공포물 등 각종 장르적 실험이 시행되던 시기로 평가된다.¹⁾ 예외적 아동괴수 실사 영화인 〈대괴수 용가리〉(1967, 김기덕), 〈우주괴인 왕마귀〉(1967, 권혁진)나 1968년 〈황금철인〉(박영일) 이후 본격적으로 제작되기 시작한 아동SF 애니메이션을 제외하면 이 시기의 한국영화에서 SF영화적 시도를 찾기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본래 문학에서 출발한 SF(Science-Fiction) 장르는 어원 그대로 과학적 내용과 허구적 상상력이 결합한 장르다. 일반적으로 SF는 고딕소설의 주형에서 탄생했다고 평가된다. 1818년 창작된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은 당시의 과학 기술이론을 반영한 소설이었으며 과학과 이성에 대한 직접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다.²⁾ 19세기에 증반에서 후반에 걸쳐 과학과 테크놀로지를 소재로 한 SF로서 쥘 베른과 H. G. 웰즈의 작품

1) 김미현 편, 『한국영화사』, 커뮤니케이션북스, 2006, 169-171쪽; 정중화, 『한국영화사』, 한국영상자료원, 2008, 140-143쪽.

2) 임종기, 『SF부족들의 새로운 문학혁명, SF의 탄생과 비상』, 책세상, 2004, 19쪽.

이 대중화되었다. 데이비드 시드에 의하면 SF란 로맨스·과학·예언의 조합, 미래의 사태에 대한 리얼리즘적 성찰, 독자에 따라 상상된 대안들에 의거한 장르다.³⁾ ‘과학적 허구’라는 거친 정의로 규정되는 이 장르는 때로 판타지·호러 등 인접 장르와 모호한 관계를 지니고 있기도 하다. 영화매체로 넘어온 SF장르 규정의 모호성은 종종 호러영화와의 변별성 문제에서 발생된다. 수전 헤이워드는 SF영화가 호러영화의 하위 장르로 간주되기도 하고 때로 판타지영화의 하위 장르로 구분되어 왔음을 언급한다.⁴⁾

이러한 분위기는 드물게 수행되는 한국 SF영화 연구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현재까지 한국 SF 영화에 대한 연구 경향은 크게 네 가지로 양분된다. 첫째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SF 애니메이션에 대한 연구다.⁵⁾ 두 번째 경향은 장르적 상상력을 중시하기는 했으나 주로 시대적으로는 1990년대 말이나 2000년대에 제작된 동시대 한국SF영화에 대한 연구다.⁶⁾ 세 번째는 SF를 보다 큰 범주인 판타지영화의 하위 장르로 다루는 것이다.⁷⁾ 네 번째는 본격적 SF영화 연구는 아니지만 한국형 호러

3) David Seed, *Science Fiction: A Very Short Introduction*, Oxford Univ. Press, 2011, 1쪽.

4) 수전 헤이워드, 이영기 외 역, 『영화사전』, 한나래, 2012(개정판), 307쪽.

5) 이성희, 『1970년대 한국 SF애니메이션 연구: 한국사회의 근대적 욕망에 대한 소망충족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허인욱, 『한국 애니메이션 영화사』, 신한미디어, 2002; 조미라, 『한국 장편 애니메이션의 서사 연구』,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4.

6) 이의경, 『한국 SF영화에 대한 고찰: 2000년대 한국 SF영화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엄상준, 『21세기 한국 SF영화의 정치적 상상력 연구: 영화 〈지구를 지켜라〉, 〈설국열차〉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박창선, 『90년대 이후 한국 SF영화의 경향성 연구: 한국적 SF영화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조미영, 『한국 SF영화에 나타난 환상성 연구: 2000년도 이후 SF영화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7) 조해진, 『한국 판타지영화의 시대별 양상과 특징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17, 2011.

영화 연구의 외중에 부분적으로 언급되는 경우다.⁸⁾ 특히 한국형 호리의 소재로서 ‘여귀’는 해당 장르의 젠더적 연구경향을 대변해왔다.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1960년대에서 1970년대 초반까지 본격적으로 제작되었던 한국SF영화의 특징이 ‘괴담·괴기’, ‘가족·아동용 SF’, ‘해외물 모방’으로 간단히 묘사된다. 아동이 아닌 성인을 대상으로 한 SF는 없는가? 여귀로 상징되는 한국형 호리와 차별화되는, 남성(과학자)이 등장하여 실험을 통해 악행을 저지르는 영화들을 어떻게 범주화할 것인가.⁹⁾ 괴기 영화와 차별되는 요소로서 ‘과학’의 기능과 기술적 조작에 대한 감성은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 해외물 모방이라고 축소시켜 논하기에 앞서 그것의 ‘한국적’ 특징을 추출해볼 수 있지 않을까? 더불어 한국적 SF영화 서사의 기원과 분화양상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필요하다.

본 연구는 1960년대 등장한 한국 SF영화의 기원과 출현, 그리고 전개 과정에 관심을 둔다. 이를 위해 한국전쟁 후 최초의 한국 SF영화로 알려진 〈투명인의 최후〉(이창근, 1960)를 시작으로 하여 1970년대 중반까지 등장한 ‘과학자 영화’를 살펴본 후 이를 한국적 ‘고딕SF영화’로 범주화하는 작업을 시도해 볼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사실상 호러·판타지·SF 장르를 구분지어 범주화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1960년대 한국에도 SF는 괴기, 스릴러,

8) 백문임, 『월하의 여곡성』, 책세상, 2008; 허지웅, 『망령의 기억: 1960-1980년대 한국 공포영화』, 한국영상자료원, 2010. 백문임의 경우 한국 SF영화의 일부를 공포영화와 아동 괴수영화의 관점에서 조명하고 있다. 허지웅은 〈살인마〉, 〈목없는 미녀〉를 공포 영화로, 〈우주괴인 왕마귀〉와 〈대괴수 용가리〉를 아동괴수영화 분류하며 이들이 멀리 떨어진 특정한 과거(식민지 시대나 한국전쟁 등)에 대한 개인적 차원의 경험을 상기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9) 수전 헤이워드 는 대표적 SF영화를 검토하며, (기계 및 문명의 발달에 맞선) 남성이 자신의 퇴화를 두려워하여 여성을 퇴화시키려는 욕망이 이 장르에 반영되어 있다고 본다. SF영화가 과학과 미래에 관한 남성들의 공포에 관한 것이라는 판단이다. 수전 헤이워드, 위의 책, 312-313쪽.

공상과학과 혼용되어 사용되었다.¹⁰⁾ 노엘 캐롤은 호러영화와 호러-SF 혼성장르(horror-SF hybrid)를 구분한다.¹¹⁾ 캐롤은 영화 〈드라큘라〉, 〈13일의 금요일〉, 〈엑소시스트〉, 〈조스〉를 호러영화로 지목한 후 이들을 ‘발견의 플롯’으로 특징짓는다. 발견의 플롯이란 ‘시작-발견(귀신, 괴물 등)-확정(있을 리 없는 정체의 확정)-대치’라는 네 단계로 구성된다. 한편 영화 〈프랑켄슈타인〉,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 〈X-레이 눈을 가진 사나이〉 등은 호러-SF로 지칭되는데, 이러한 영화들은 ‘과잉 도달자(Overreacher) 플롯’으로 구분된다. 윤리적으로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은 과학자를 다룬다는 취지에서다. 이 유형의 영화는 앞에 대한 과학의 의지를 비판한다. 이 유형의 플롯 역시 네 단계로 진행된다. 첫째는 망상증적 주인공의 ‘실험 준비-실험 수행-실험 불발-괴물과의 대치’이다. 여기서 말하는 ‘과잉 도달자’, 즉 과학의 금도를 넘어선 자를 다루는 호러-SF 혼성장르들은 과학자, 실험, 광기, 비윤리성 등을 서사의 주된 요소로 삼고 있다. 본고에서는 특히 후자의 특징을 지닌 SF-호러 하리브리드 영화를 고딕SF로 지칭할 것이다. 추리서사에서는 이성적 추론을 통해 미스터리를 해결하는 양식을 ‘本格추리’로 기괴와 환상까지도 소재로 삼는 양식을 ‘변격추리’로 변별하기도 한다. 과학적 사실이나 법칙에 무게를 둔 하드SF(hard SF)라고 하는데, 이 글에서는 이와 변별되는 하위 장

10) 『사치원의 세계의 꿈, 성행하는 S.F. 영화의 부음』, 『동아일보』 1960.7.4. 이 기사는 최근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우주로켓트 부음을 타고 우주에 대한 공상과학영화가 압도적으로 유행하고 있음을 밝힌다. 이러한 영화 중에는 우주인이 지구를 습격하거나, 지구인이 우주를 찾아가거나, 방사능을 소재로 한 영화들이 다수라고 밝힌다. 특히 스텔리 크레이머의 〈바닷가에서〉는 방사능 재해를 다룬 영화이고, 〈방사능 X〉, 〈원자괴수〉, 〈괴수 우렁〉, 〈축소하는 인간〉 등은 모두 방사능으로 인하여 변이를 일으키는 공상소설이라고 설명되어 있다.

11) Noel Carroll, 『Nightmare and Horror Film; The Symbolic Biology of Fantastic Beings』, *Film Quarterly* 34, 3, 1981, 16-25쪽; Steave Neal, *Genre and Hollywood*, Routledge, 2000, 36-38쪽에서 재인용.

르의 하나로서 초자연적 현상과 원한까지 ‘과학적 실험’의 대상으로 삼는 과학자 등장 영화들을 고딕SF로 규정하겠다. 이들을 호러의 장르에서가 아니라 SF의 장르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이유는, 이 작품들에서 ‘과학자’와 ‘실험실’이 부각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초자연적인 원한을 다루는 같은 시기의 호러 장르인 ‘여귀영화’와 차별화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한국에 처음 SF영화가 소개된 것은 1929년 〈메트로폴리스〉에서부터다.¹²⁾ SF영화는 초창기 과학영화로 불리다가 차츰 공상과학영화라는 명칭을 얻게 되었다. 1930년대에 ‘과학영화’는 영화의 분명한 하위장르로 인식되기도 하였다.¹³⁾ ‘과학영화’라는 용어를 대체하고 Science-Fiction의 일본식 번역어인 ‘공상과학영화’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한국전쟁 이후 SF영화의 붐이 일던 시기로 보인다.¹⁴⁾

1960년대 서구 SF영화의 수입상황을 살펴보면 흥미롭다. 1959년과 1962년 사이 한국에는 〈프랑켄슈타인의 역습〉(테렌스 피셔, 1957), 〈괴인 드라큐라〉(테렌스 피셔, 1958), 〈납 인형의 비밀(House of Wax)〉(안드레 드 토스, 1953), 〈앗샤가의 참극〉(로저 코먼, 1960) 등이 수입되어 호러와 스릴러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켰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 1930년대 미국의 ‘고전적 공포영화’에서 탄생한 다양한 종류의 괴물들을 다시

12) R生, 『우파사 작 메트로폴리스』, 『동아일보』 1929.5.2. 같은 해 멜리에스의 〈달나라 여행〉도 지면상으로나마 소개된다. 『월세계여행』, 『동아일보』, 1929.2.1.

13) 이운곡, 『영화의 문화적 역할(4)-영화의 인식론적 가치』, 『동아일보』, 1937.10.26. 이 기사에서 과학영화는 교육영화, 문화영화 등 다양한 자기목적적 지닌 양식으로 설명된다.

14) 『실감 없는 과학영화 〈인공위성 X호〉』, 『동아일보』, 1959.9.11. 이 기사의 본문에서 기자는 ‘공상과학영화’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사차원의 세계의 꿈, 성행하는 S.F. 영화의 부음』, 『동아일보』 1960.7.4. 이 기사는 SF의 하위 장르로 ‘공상과학영화’, ‘괴기영화’, ‘슬릴러(thriller)’ 등을 나눈다.

스크린 위에 올리면서 혁신을 꾀한 때이기도 하다.¹⁵⁾ 입체 공포영화 〈심야의 별장〉(윌리엄 캐슬 1959), 〈흑사관의 공포〉(아서 크랩트리, 1959)도 한국에서 개봉했다. 〈모르크가의 괴인〉(로이 텔루스, 1954)와 〈앗샤가의 참극〉(로저 코먼, 1960)과 같은 경우는 에드가 알란 포우의 『모르그가의 살인사건』과 『어셔가의 몰락』을 각각 원작으로 삼은 작품으로 당시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기도 했다.¹⁶⁾ 경영난에 허덕이던 영국의 무명 영화사 '해머 필름(Hammer Film Productions)'은 1950년대 '공포영화'가 돈이 되리라 예측하여 그 방향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가장 큰 영화시장인 미국에서 환영받을 수 있는 고전적 공포 캐릭터들을 등장시키자, 미국 메이저 영화사들이 이 영화들을 시장에 배급했다. 1950년대 중반부터 테렌스 피셔 감독이나 인기배우 피터 쿠싱, 크리스토퍼 리 등을 동원해 제작한 해머 필름의 고딕 호러 영화는 연속적으로 미국과 영국에서 인기를 끌었다.

이러한 해외 영화의 제작, 수입의 영향 하에서 한국에서도 SF영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대개는 일상과 동떨어진 저택에서 벌어지는 기이하고 끔찍한 사건들을 다루는 영화들로, 초기의 서사들에서는 서구 고딕소설의 전형적인 설정들이 드러나고 있다. 『어셔가의 몰락』, 『프랑켄슈타인』, 『드라큘라』나 인간 내면의 악과 현대기술의 부정성을 보여준 『지킬박사와 하이드씨』, 『투명인간』 등이 그러한 작품들이다. 덧붙여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임선규, 1936)나 『개척자』(이광수, 1918)¹⁷⁾에 등장하는 누이-오빠 서사와 연애삼각구도, 식민지 시대에 형성된 원한의

15) 백문임, 위의 책, 97-98쪽.

16) 이 영화들은 '포의 영화로 간주되며 스타일과 추리에 덧붙여 인간의 심오한 단면을 해부검토해 보여 문학적 가치를 높이고 있다고 평가받기도 했다. 오상순, 『시종 전율과 공포의 연속』, 『국제영화』, 1960.7월호.

17) 이 작품은 1925년 이경손 감독에 의해 영화화되기도 했다.

감정 등이 혼합되어 한국적 고딕SF만의 특징을 만들어나가게 되었다.

1960년대 한국 SF영화는 당대 진행되어온 근대화과정에 대한 두 가지의 반응일 수 있다. 질서와 규격화에 익숙했던 제3공화국의 폐쇄적 스타일에 대한 첫 번째 반응은 부정성, 가학성, 멜로드라마틱 과잉, 그로테스크를 강조한 고딕 SF영화들이었다. 영화의 공간은 현실이 아닌 외판 대저택이나 병원건물에 한정된다. 비오는 어두운 밤, 생체실험, 쌓인 시체들, 광기, 연쇄살인, 파국적 결말 등이 주요 요소로 등장하는 이 영화들에서는 ‘과학주의’를 가장한 미치광이 과학자가 등장하여 기이한 세계의 질서를 장악하려 한다. 미치광이 과학자는 자신의 오도된 욕망으로 비인도적이고 잔혹한 실험을 반복하는데, 그는 폐쇄된 공간 안에서 지식과 권능의 최고 권좌에 있으나 결말에서는 비극적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 두 번째 반응은 괴수 퇴치를 주된 서사로 하는 아동 SF영화로 이들은 터무니없는 합리주의, 긍정성, 계몽성, 기지와 피로 포장된 공격성(방첩물에 흔히 나타나는 꼬마들의 추리와 신고)을 포함하고 있다. 원자력, 에너지 과학은 국방의 주요한 자산이 되며, 적국을 능가하는 과학기술은 ‘국방력’의 다른 이름이 된다.

한국 과학영화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은 냉전과 함께 전개된 과학전쟁일 것이다. 냉전기 미국과 소련은 우주과학 경쟁국으로서, 양국 전략 무기를 공격적으로 정비해 나갔다. 핵폭탄이 전 세계를 공멸시킬 수 있다는 핵공포는 대중들에게 과학에 대한 무의식적 반감을 심어두었다. 과학에 대한 무의식적 공포는 이 시기 영화에 등장하는 과학을 주관하는 전문가인 과학자에 대한 불신을 해석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된다.

다른 한편에서 ‘과학’의 선도성은 대중들에게 국가에 대한 신뢰감을 주는 절대적 요소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가 경제부흥과 국가안보에 집중하며 정권의 정당성을 보장받으려 했으

며 경제와 안보 두 분야와 관련되어 과학기술이 부흥하게 되었다고 일반적으로 평가된다. 박정희 정권은 1962년 시작된 경제개발계획의 하부 계획으로 '제1차 기술진흥 5개년계획(1962-1966)'과 '제2차 과학기술진흥 5개년계획(1967-1971)'을 수립하고 '과학기술개발 장기종합계획(1967-1968)'도 마련하였다. 기술응용 촉진 기반 확충을 위해 1966년에 '한국과학기술연구소'가 설립된다. 1967년 1월에는 「과학기술진흥법」이 제정되었고 같은 해 4월 과학기술처가 설립되었다. 과학의 현대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1967년 제작된 <우주괴인 왕마귀>나 <대괴수 용가리>, 1968년 이후 본격적으로 제작되기 시작한 아동SF 애니메이션들은 이러한 분위기에서 등장할 수 있던 영화였다. 이들은 고딕SF와는 달리 남성 과학자가 아니라 소년과 과학자가 연대하여 불안의 근원인 거대한 타자를 제압하는 냉전기 소년SF의 하위 장르를 형성하였다.

이 글에서는 1960년에서 1970년대 초반까지 제작된 '과학자' 영화에 관심을 갖는다.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한국영화사에서 가장 오래된 SF영화는 <투명인의 최후>(1960, 이창근)이다. 이어 일련의 과학자 영화들이 만들어졌다. 생명에 관여하는 식물학자, 동물학자, 곤충학자, 유전공학자 혹은 이와 유사한 의사(뇌과학자) 등이 소재로 등장하는 영화는 <악의 꽃>(1961, 이용민)을 시작으로 <목없는 미녀>(1966, 이용민)를 정점으로 하여 <공포의 이중인간>(1974, 이용민)까지 이어졌다.¹⁸⁾ 연

18) 기본 연구 대상은 다음과 같다.(영상이 남아있지 않아 시나리오로 검토한 작품을 [S]로, 영상이 남아있는 경우를 [FI]로 표기하였다. [FI]의 경우 시나리오도 함께 검토하였다) <투명인의 최후>(이창근, 1960)[S], <악의 꽃>(이용민, 1961)[S], <목숨을 판 사나이>(혹은 '생명을 판 사나이')(신현호, 1964)[S], <목없는 미녀>(이용민, 1965)[FI], <우주괴인 왕마귀>(권혁진, 1967)[FI], <대괴수 용가리>(김기덕, 1967)[FI], <악마와 미녀>(이용민, 1969)[S], <투명괴인>(이규웅, 1969)[S], <원>(남태권, 1969)[FI], <공포의 이중인간>(이용민, 1974)[FI], <반수반인>(김기, 1975)[S]. 더불어 이들의 장르적 모방작인 <한녀>(이유섭, 1981)[S], <투명인간>(김기충, 1986)[FI]도 검토하였다.

구대상을 '과학자 영화'로 한정할 이유는 소년SF를 제외하고 이 시기 다른 SF영화의 흔적을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본고에서 연구대상으로 삼은 '과학자 영화'가 1960년대-1970년대 중반까지 제작된 거의 모든 성인 대상 SF영화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시기를 1970년대 중반으로 한정할 이유는 <영노>(1976, 이성구), <원무>(1976, 박윤교) 등에도 과학이나 과학자가 등장하지만 식물학, 동물학, 유전과학, 화학 등 이전의 영화가 (비록 초자연적인 원인을 소재로 다루고 있다하더라도 명목상으로는) 자연과학의 틀을 빌어왔던 것과 달리 1970년대 중반이 되면 본격적으로 심령과학을 다루는 영화들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1970년대에 전세계적인 오컬트영화의 붐이 일었고, 1975년 5월에 한국에 <엑소시스트>가 1976년에는 <오멘>이 수입되었던 분위기가 반영된 듯하다.

한국의 고딕SF영화는 이른바 '근대과학'과 '합리성'이 보편화된 탈주술화된 세계가 아니라 계몽 이전 세계의 과학공포증을 드러내고, 특히 앞을 독점한 광적인 남성 과학자의 등장애 주목한다. 이러한 영화들은 소위 박정희 정권이 과학기술을 경제발전과 연동시켜 이데올로기를 형성하고 이를 대중화했던 시대에 증후적으로 돌출되었던, 비관적 전망과 사악함이 가득한 기묘한 작품들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2. 퇴행적 과학관과 제국주의적 향수

과학은 사물의 구조 성질, 법칙 등에 대해 관찰 가능한 방법으로 얻어진 체계적이고 이론적 지식의 체계를 뜻한다. 과학을 뜻하는 science는 지식이라는 뜻의 라틴어 scientia에서 유래했다. 유럽에서 고대부터 중세

와 계몽주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science나 scientia는 모든 종류의 체계적인 앎을 가리켰다. 유럽은 16-17세기 과학혁명을 거치면서 수학과 실험과학을 구비한 근대과학(modern-science)을 구축해갔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인간의 합리적인 자연해석과 진리탐구가 가능해지게 되고, 미신적이거나 신화적 독선에서 인간이성이 해방되게 되었다.

한국에서 1960년대는 근대화와 더불어 '과학기술의 현대적 정착'¹⁹⁾이 이루어진 시기로 평가받는다. 해방 후 국립 서울대학교를 필두로 대학의 설립이 이어지면서 이공계 학과들이 설치되었고 과학기술 분야의 고등교육이 시작되었다. 한국전쟁을 거치며 물적 자원의 파괴를 경험했던 남한사회에서 현대과학의 학습은 1959년 과학기술 행정을 실질적으로 주도했던 원자력원의 창설과 함께 본격화되었다. 하지만 과학기술을 위한 제도과 조직, 교육정책 등이 체계적으로 구축되기 시작한 시기는 1960년대 중반 무렵이었다.²⁰⁾

대한민국 과학의 현대화 과정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이 시기 제작된 때때로 초자연적인 경계를 오가는 '과학' 소재 고딕영화를 SF장르로 이해하기 위해서다. 1960년대는 근대과학적 세계관, 현대적 과학기술의 학습과 제도화가 구축되어간 시기였다. 본고에서 다루는 영화들은 수치와 실험을 통해 증명 가능한 지식의 체계를 다루는 과학과는 달리, 지식을 권력화한 과학자가 극도로 일어나기 희박한 그로테스크한 행동을 보이거나 초자연적인 실험을 수행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다. 과학의 현대화 과정과는 대치되는 퇴행적 과학관이 선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영화에 등장하는 과학관의 퇴행뿐만 아니라 영화 내적으로는 시간 구조상

19) 김근배, 「과학기술입국의 해부도-1960년대 과학기술 지형」, 『역사비평』 85, 2008, 236쪽.

20) 문만용, 「1960년대 '과학기술 붐': 한국의 현대적 과학기술체계의 형성」, 『한국과학사 회학지』 제29권 1호, 2007, 69-70쪽.

식민지 후반기의 원한을 소환해내는 방식으로 등장한다. 그렇기에 비록 식물학, 의학, 생명과학 등 근대과학을 다루는 과학자를 등장시키고 있기는 하지만 가치관 상에서 퇴행성과 식민지 시대 형성된 원한감정에 억압된 개인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 한국형 고딕SF의 특징이다.

고딕SF라는 장르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과학혁명을 기반으로 한 산업혁명기에 발생한 고딕소설의 발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서구에서 고딕소설은 사실주의적이며 합리주의적 전통과는 달리 경험주의적 물질세계를 넘어선 신비롭고 불가해한 영역에 대한 탐구로서 많은 독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흔히 '이성의 시대'라 불리는 18세기에 등장한 고딕소설은 어떤 면에서 당대의 엄격하고 규율적인 시대정신에 대한 무의식적인 반작용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고딕 소설은 지나친 공상과 상상으로 이루어진 중세 로맨스가 지닌 한계와 정확한 현실묘사에 충실한 근대 사실주의 소설 각각이 지닌 단점을 절충하고 보완하기 위한 혼합 장르기도 했다. 전통적 고딕 소설의 사건은 주로 오래된 성, 사원, 수도원 등을 배경으로 일어나는데, 이러한 장소들은 복잡한 비밀통로, 지하감옥, 비밀의 문, 함정, 숨겨진 방 등을 두루 갖추고 있다. 이야기는 주로 젊고 아름다우며 순결한 여성이 잔악무도하고 욕정적인 악한(폭군)에게 당하는 고통을 다루고 있다. 초기의 고딕 소설에서는 성이 이야기가 전개되는 주요 장소로 쓰이지만 나중에는 오래된 대저택으로 그 주요무대가 점차 바뀌게 된다.²¹⁾

고딕소설이 크게 유행한 배경에는 합리성의 명목 하에 억압받았던 초자연적·비합리적인 것의 귀환의 측면도 놓여있다. 고딕 소설은 문명의 내면에 놓인 비합리적 욕망이나 사악한 충동 등을 반영하고 있다. 고딕소설은 주제와 표현의 과도함(excess)과 극단(extream)으로 인해 중

21) 정연재, 『포우와 미국 고딕소설의 전통』, 『근대영미소설』 제13집 1호, 2006, 241-243쪽.

중 작가들의 풍자와 조소의 대상이 되었다. 전통적인 영국의 고딕 소설은 지극히 평면적인 인물설정, 멜로드라마틱한 플롯, 작품 전반에 걸친 기괴한 분위기, 빈번히 발생하는 초자연적인 현상들 때문에 당대의 문인들과 비평가들로부터 높은 미학적 평가를 받지는 못했다.

한국적 고딕SF영화는 서구 고딕문학과 다음과 같은 점을 일반적으로 공유한다. 사건은 주로 인가와 분리된 외딴 공간(호텔, 별장, 병원)의 서구식 대저택에서 일어난다. 잔악하고 탐욕적인 과학자가 자신의 사욕을 위해 실험 대상에게 고통을 가하는데, 실험 대상은 대개 젊고 순결한 여성들이다. 명목상으로는 과학적 실험을 표방하고 있지만 원한에 근거한 초현실적 현상들도 빈번하다. 주제와 표현에 있어서 과도함과 극단성을 갖추고 있다.

프랑코 모레티는 대표적인 고딕소설 『프랑켄슈타인』과 『드라쿨라』를 분석하며, 이들 소설이 근대사회의 불안을 반영하며 반동적이고 퇴행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음을 분석한 바 있다. 그는 다양한 사람들의 신체로 조합된 괴물의 정체성을 ‘프롤레타리아’의 것으로 간주한다. 지식의 정점에 선 프랑켄슈타인 박사가 만들어낸 괴물 속에서 봉건적 관계가 무너지면서 도적질에 나서거나 가난과 죽음으로 내몰렸던 ‘가난한 사람들’의 육신이 재통합되고 다시 생명을 얻는다. 프랑코 모레티는 메리 셸리의 소설에서 악마(괴물로서의 프롤레타리아)의 종족들이 지상에 번식하게 되어 지구가 인간에게 위험하고 공포로 가득한 곳이 될 지도 모른다는 진정한 악몽이 상상되고 있다고 보았다. 소설 『프랑켄슈타인』의 결말은 세상의 가족이 안전하다는 것으로 끝나기에, 이 소설의 진정한 보수성은 괴물을 처치하고 ‘가족’의 가치를 회복한다는 것에 놓여있다.²²⁾

한편 『드라쿨라』는 전통사회의 귀족제도가 사라져가는 자본주의 사

22) 프랑코 모레티, 조형준 역, 『공포의 변증법』, 새물결, 2013, 23쪽.

회에 대한 공포가 반영된 텍스트로 분석된다. 애덤 스미스를 읽은 드라쿨라는 하인도 없이 살아가며, 피를 단 한 방울도 허비하지 않고 필요한 만큼만 착취한다. 즉 드라쿨라는 구원자이며 금융주의자로 프로테스탄트 윤리의 지지자다. 그는 자본처럼 끊임없이 증식하고 지배영역을 무한대로 확장하려는 욕구에 내몰리는데, 그의 본성에는 본질적으로 무한한 축적욕이 내재해 있다. 드라쿨라는 부르주아적 세기의 최종 산물인 동시에 그에 대한 부정이기도 하다. 빅토리아조의 문화적 범주들, 도덕적 가치들, 표현 형식들은 흡혈귀에 의해 강력한 위협을 받지만, 영화는 이의 가치를 재확인하며 승리의 종점으로 만든다. 즉 흡혈귀란 영국사회가 자본주의적 독점에 맞선 부정적 반응이라는 것이다.²³⁾

『프랑켄슈타인』과 『드라쿨라』는 변증법적 관계들의 문학이다. 여기서 대립물들은 분리되어 갈등을 일으키는 대신에 상대방과 동시에 기능하며 서로 강화시켜준다. 프랑켄슈타인(과학자)과 괴물이, 루시(여성)와 드라쿨라의 관계가 이러한 부정의 변증법의 관계다. 그가 보기에 공포 문학과 독자와의 관계 역시 그러하다. 작품이 무서울수록 그만큼 교화적이다. 굴욕적일수록 고상함을 강요한다. 더 많이 은폐할수록 그대로 드러난다. 비합리성의 위협에 기반을 둔 사회를 받아들여려면 그러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다.²⁴⁾

한국의 고딕SF의 경우 지식, 권능, 경제의 정점에는 과학자가 놓여있다. 과학자와 실험대상의 관계는 위에서 프랑켄슈타인 박사와 시체들(프롤레타리아들)로 만들어진 괴물의 관계와 유사하다. 가령 〈공포의 이중인간〉의 경우 정신병원에 입원한 가난한 사람들이나 힘없는 간호사들이 실험 대상으로 전락하여 실패 후 시체실에 가서 무더기로 쌓이게

23) 프랑코 모레티, 위의 책, 32-45쪽.

24) 프랑코 모레티, 위의 책, 62쪽.

된다. 이들은 영화의 중반에 리빙데드로 살아나 복수를 가하는데, 때로는 힘을 합해 박사를 공격하기도 한다. 영화에서 최종적으로 생존하는 존재는 환자, 광인, 노파를 제외한 순수한 젊은 연인이다. 사악한 과학자와 원한의 기원인 과거로부터 탈출한 청춘남녀는 예정된 결혼을 통해 안전한 가족을 이룰 것이다.

한편 한국의 고딕SF 영화에는 고딕소설이 빅토리아조에 대해 그러하듯이 제국주의 시대에 대한 향수와 복고적 회고가 반영되어 있기도 하다. 주인공은 대개 식민지 시절 과학적 지식을 일본에서 축적한 자이며, 이를 통해 부를 얻고 거대한 저택을 지어 살아간다. 그가 과학에 몰두하는 이유는 동포 나아가 인류를 위해서가 아니라 개인의 욕망과 원한의 해소를 위해서다. 그는 지식으로 세계를 지배하기를 원한다. 가령 미치광이 과학자²⁵⁾는 실험을 통해 죽은 일본 군인을 살려내 제국 일본이 숨겨둔 금궤의 위치를 알아내려 한다. 혹은 일본 귀족 딸의 성형수술을 위해 생사람의 얼굴 가죽을 떼어낸다. 피해자는 조선 거리를 배회하는 힘 없는 자들(주로 젊은 여성들이나 남성 범죄자들이나 일탈자들)이다. 자신의 세계(저택, 병원 등)을 지배하고 타인에 대한 권력을 무한대로 확장하려는 이들의 욕망은 결국 파멸에 이르고 만다.

문제는 미친 과학자를 만들어낸 시대 혹은 비윤리적 실험을 자행하게 한 근본 원인이 '과거', 즉 제국주의적 식민지 시대에 놓여있다는 점이다. 이 점은 영화에서 모순적으로 드러난다. 과학자에게 이 시기는 자신이 학자로서의 성공, 물질적이고도 문화적인 풍요로움을 누리던 황금시대로 회상된다. 다른 한편에서 과거는 그 시기 태평양 전쟁의 와중에 자행되었던 범죄로 인해 원한이 형성된 시기기도 하다. 번영에 대한 향수와

25) 일반적으로 SF장르에서 미친 교수, 미치광이 과학자(crazy-professor, mad-scientist)라는 캐릭터로 전형화되어 있다.

원한에 대한 복수심이 양가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고딕 SF영화는 식민지 시대에 대한 모순적 감정을 보이는데, 이러한 요소를 통해 하위장르 영화에 나타난 대중들의 양립불가능한 욕망을 증후적으로 읽어낼 수 있을 것이다.

3. 좋은 과학과 나쁜 과학

1960년대에 남성관객을 대상으로 한 일련의 고딕SF영화가 만들어졌다. 이에 해당하는 영화는 한국 최초의 SF인 <투명인의 최후>(1960, 이창근)에서 <반인반수>(1975, 김기)에 이르는 시기에 제작되었다. 이후 '과학자가 등장하는 SF영화는 크게 두 가지 경향으로 변별된다.

첫 번째 경향인 '투명인간'을 소재로 한 영화는 총 세 차례 만들어졌다. 이들은 소설 『투명인간』의 설정을 빌려오되, 원작의 비관적 분위기를 바꿔 신파적 분위기가 가미된 권선징악의 서사로 탈바꿈시켰다. 투명인간 계열 영화의 주인공은 과학자이지만 일반적으로 선한 도덕주의자들이다.

두 번째 경향으로 광기에 빠진 과학자가 등장하는 음산하고 괴기스런 영화들도 만들어졌다. 여기서 근대과학은 권위의 상징이지만, 이는 자신과 주변인물을 파멸로 이끄는 오도된 권위로 기능한다. 과학은 영화에 등장하는 초현실적 사건을 개연성 있는 것으로 만드는 장치로 등장한다. 과학자는 사리사욕을 위해 도의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실험(납치한 자들의 인체실험, 일본군의 부활, 사악한 목적의 이식과 흡혈 등)을 진행한다. 미치광이 과학자의 실험이 점점 극단적이 되거나, 과학으로는 도저히 설명될 수 없는 원한의 작동을 설명해야 하는 순간에도

달하면 두 번째 경향의 영화들은 점차 심령과학 쪽으로 기울게 되며 영화는 과학자영화에서 점차 오컬트영화로 변이해 갈 것이다.

3-1. 투명인간: 신파멜로에서 계몽적 반공영화로

1960년대 고딕SF의 첫 번째는 경향은 웰즈의 『투명인간』 모티프를 한국적으로 풀어낸 영화들이다. <투명인의 최후>(1960, 이창근)와 <투명괴인>(1969, 이규용)은 이후 <투명인간>(1986, 김기충)으로 이어진다. 투명인간을 소재로 한 세 영화의 변화는 해당 영화가 생산되었던 시대적 변화를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신파 멜로드라마에서, 코믹 분위기의 근대화 서사로, 그리고 명백한 계몽영화로의 이행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강간, 사기, 협박을 포함 성인들의 애정갈등을 다룬 최초의 서사는 <투명인간>(1986)에 이르면 아동이 등장하는 계몽영화로 변화한다.

<투명인의 최후>는 감독 이창근이 직접 대본작업을 한 최초의 한국 SF영화이다. 실험으로 투명인간이 된다는 설정은 웰즈의 『투명인간』의 영향으로 인한 것이다. 소설과 달리 영화는 과학자 오빠의 실험을 위해 여동생이 헌신한다는 설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설정은 이광수 『개척자』(1918)를 연상시킨다. 한편 오빠의 학비를 위해 윤락녀가 된다는 설정은 인기 공연 레퍼토리아던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를 연상시킨다. ‘투명인’이라는 SF의 소재를 차용하면서도, 서사의 근간에 식민지시대 이래로 익숙한 조선적 신파를 깔아둔 것이다.

어려운 형편에도 인류 건강을 위한 화학적 연구를 하는 대학생 인규(이민)는 여동생 금순(이경희)의 경제적 도움으로 학업을 이어간다. 인규의 대학 동기인 윤룡은 인규의 여동생 금순을 임신시킨 후 못된 소문을 퍼뜨려 자신의 부친이 운영하던 회사에 다니던 그녀를 해고시킨다.

오빠 학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금순은 종로3가의 몸 파는 여인이 되어 실험과 연구를 돕는다. 인규는 대학에서 물리학을 전공하는 과학도인데, '완성되면 이 세상에 병마에 신음할 사람도 없거니와 죽을 사람도 드물게 되는 비밀 연구를 하고 있다. 몸을 팔던 금순이 병마에 시달리다 죽어버리고 연인이던 숙향도 운룡과 억지로 결혼하게 되자, 자세한 사정을 모르던 인규는 음독자살을 시도한다. 하지만 자살에 실패한 후 그는 독약의 부작용으로 투명인이 되고 만다. 투명인이 된 그는 자신을 모방해 범죄를 저지르고 다니는 '가짜 투명괴인' 운룡에게 복수한 후 숙향과 새 출발을 기약한다.

시나리오의 대사를 통해 살펴보면 주인공 인규는 '마음이 착하고 또 누구보다도 뛰어난 두뇌를 가진 과학도'이다. 이 영화에서 과학, 실험, 투명화 등의 소재는 영화의 지배적 요소인 멜로드라마적 갈등을 극대화하는 장식적 요소에 불과하다. 영화는 원작 소설에서 투명인간이 처음에 아이핑크 여관에 머물며 미스터리한 정체성을 보여주는 설정을 차용해 '태백장 여관'이라는 공간을 배경으로 삼았다. 투명괴인의 정체성 중반 이후가 되어서야 밝혀지는 미스터리적 구조 역시 원작에서 차용된 것이다. 제어 불가능한 과학주의에 빠진 주인공 그리핀의 비극적 파멸을 다룬 원작소설과 달리 영화 <투명인의 최후>는 과학도 오빠의 성공을 위해 여동생과 전 애인이 희생하는 방식의 여성수난 서사와, 무뢰한에 대한 복수의 서사를 강화한 신파 멜로영화에 가까웠다.

<투명괴인>(이규용, 1969)에서는 앞선 영화에서 보여준 신파조가 사라지고 투명인을 둘러싼 코믹코드가 강화되었다. 영화의 각본은 신봉승이 담당했다. 영화의 전반적인 설정에는 <투명인의 최후>와 유사한 부분도 많다. 시도(신성일)라는 청년은 자기의 여동생을 탐내는 불량배 두목 광식(허장강)의 흥계로 살인혐의를 받고 쫓기는 몸이 된다. 당황한

그는 약혼녀 미연(남정임)의 아버지 김창기 박사가 연구 중인 인간증발 주사약을 자신의 몸에 주사하여 투명인간이 된다. 그리하여 투명인간을 보았다는 사람이 정신이상자로 취급되는 등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게 된다. 그러는 동안에 인간환원 주사약이 발명되어 시도는 다시 정상인의 모습을 찾고 광식 일당은 경찰에 일망타진된다. 이 영화에서도 시도의 여동생 숙경이 오빠의 누명을 벗겨주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여 카바레에 나가고 악한인 상규에 의해 강간당하는 설정이 등장한다. 흥미로운 점은 김박사와 시도의 실험이 앞선 영화에서와는 달리 '경찰력이나 국방문제'에 쓰일 것이라 전망된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투명인간>(1986, 김기충)은 본 연구의 검토시기를 벗어나는 영화이지만 '투명인간' 부류의 변화를 살피기 위해 부수적으로 살펴본다. 영화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계적 유전공학 권위자인 윤박사가 해외 심포지움에 참석한 사이 그의 연구실에서 논문을 꺼내 본 오인철(이영하)과 약혼녀 윤진숙(현지혜)은 염색소의 원리를 연구하여 투명인간이 되는 약을 연구한다. 인철이 투명인간이 되어 은행가 치기배도 잡고 소년 인질범을 잡는 등 사회악 척결에 힘써 신문에 대서특필 되었으나 자신을 미행한 악당에게 정체가 발각되어 투명약을 빼앗긴다. 악당은 투명인간이 되어 은행을 터는 등의 악을 일삼는데 다시 인간으로 환원되는 약이 없어서 인철을 찾아와 환원제를 요구하다가 미행한 경찰에게 붙잡히고 만다.

이 영화에서 악한 '가짜 괴인'의 등장하고 이를 선한 '진짜 괴인'(과 그의 동료)이 처벌한다는 설정은 <투명인의 최후>와 관련된다. 스승의 딸과 사랑에 빠진 남성이 등장한다는 설정은 <투명괴인>의 설정을 잇는다. 또한 사라지는 매개자(vanishing mediator)로서 여동생이 등장한다는 것도 앞선 두 영화와의 공통점이다.

한편 이 영화만의 특이점도 있다. 첫 번째는 투명인간이 된 인철이 사회악 일소에 기여한다는 점이다. 그는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에 전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만연된 비행들을 교정한다. 그는 은행 치기배를 잡고 도박판의 사기꾼을 제재하며 자살비관자를 돕고 공금횡령을 면하게 한다. 또 다른 특이점은 인철의 애인 윤진숙의 남동생인 초등학교 4학년(10세) 수만이라는 소년 캐릭터의 등장에 놓여있다. 수만의 학급 친구들로 조직된 소년특공대는 가짜 투명인간의 토벌작전에 나서게 되는데²⁶⁾, 이러한 서사는 1960년대 괴수가 등장하는 소년SF의 서사적 기원인 '뜯돌이의 모험'과 어느 정도 관련되어 있다. <투명인의 최후>에서 비롯된 괴인과 가짜괴인에 관련된 미스터리-멜로적 흥미 본위 서사는 <투명인간>에 이르면 자유남한인과 공산당의 정체성을 대조시키는 반공적 소재로 변화된다.

3-2. 흡혈식물: 괴물의 탄생과 악의 기원으로서 식민지 시대

<악의 꽃>(1961, 이용민), <원>(1969, 남태권)은 사악한 식물과 식물학자가 등장하는 영화이다. 이외에도 식물학자가 등장하는 괴수영화로 <반수반인>(1975, 김기)이 있다.²⁷⁾ 특이하게도 흡혈귀를 통해 전염에 대

26) 이들은 '나가자, 무찌르자, 선량을 괴롭히는 가짜 투명의 무리들. 나가자, 무찌르자, 나쁜 사나이들'이라는 가사의 노래를 부른다. 수만은 112를 돌려 범인을 고발하기도 한다. 결국 가짜 투명괴인은 눈발에 생긴 발자국으로 충을 맞은 채 '빨간 피눈물'을 흘리며 죽음을 맞이한다. '빨간 눈물'은 명백히 가짜 괴인의 정체를 공산당의 정체성과 일치시키는 시각적 장치로 기능한다. 수만과 그의 학급친구들로 구성된 소년특공대는 <뜯돌이의 모험>(1968, 김영식)에 등장하는 뜯돌이와 친구들의 행적을 상기시킨다.

27) 본격 연구대상은 아니지만, 제국주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에 간단한 초반 설정을 소개한다. 경성제국대학 강사이자 산삼을 연구하는 식물학자 최광호는 산삼이 야생적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히말라야의 설인과 같은 반수반인의 존재인 낭남, 즉

한 공포를 유포시킨 브람 스토커의 『드라큘라』의 설정은 한국영화에서 ‘흡혈식물’에 대한 상상력으로 전이되었다.²⁸⁾ 실제 당시 〈악의 꽃〉은 한국형 ‘드라큘라’로 홍보되었다.²⁹⁾ 한편 〈원〉의 감독 남태권은 〈악의 꽃〉의 각본을 담당한 바 있는데³⁰⁾, 설정 상 〈원〉은 〈악의 꽃〉의 리메이크작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악의 꽃〉은 이후 이용민 감독의 고딕SF와 공포영화의 원형이 등장하는 작품으로 주목할 만하다. 외딴 곳에 있는 서양식 저택에 출몰하는 긴 머리 산발하고 혀를 늘어뜨린 소복 입은 여귀, 불길함의 전조로서의 고양이(때로 귀신 쫓는 고양이), 대저택의 곳곳에 놓인 액조탁하고도 그로테스크한 식물 오브제, 은밀한 실험이 이루어지는 비밀 공간인 실험실, 시체가 쌓여있는 지하실과 인근의 공동묘지 등이 그러하다. 거대한 저택에는 일을 도와주는 노파가 존재하는데, 이 노파는 이후 반복적으로

늑대인간에 의해 재배되고 있다고 믿는다. 그의 믿음은 일본인들에 의해 허황된 것으로 치부된다. 경성제국대학에서 열린 학술대회에서 최광호의 발표를 들은 일본 식물학 권위자들은 그의 연구가 대동아전쟁을 수행하는 제국 일본의 이익에 부합하지 못하기에, 그의 강사자격을 박탈하고 징용으로 끌어내 탄광에 보내야한다고 비난한다. 징용 통보 후 최광호는 징용 회피 겸 연구를 위해 산 속으로 떠나 30년 동안 행방 불명이 된다.

28) 비슷한 소재의 영화로 〈흡혈식물 대소동〉(로저 코먼, 1960)이라는 영화가 있지만, 〈악의 꽃〉은 B급 블랙코미디인 전작에 비해 오히려 고딕적 장엄함과 비장미의 측면에서 『드라큘라』의 성전도(性轉倒) 버전에 가까워 보인다.

29) 국산 『드라큘라』로 알려진 〈악의 꽃〉은 서양풍의 무섭지 않은 오락용의 괴기물로 평가되었다. 바의 여귀를 마취해 톱으로 팔을 자를 때엔 관객들을 웃게 했으며, 처가 남편에게 피를 빨리면서도 묘한 압살교성을 발하여 기괴한 음탕감을 낼 뿐 무섭지 않았다고 비웃음을 사기도 했다. 『극장가, 양풍 풍기는 한국 귀산 국산 〈드라큘라〉…〈악의 꽃〉』 『한국일보』, 1961.4.9.

30) 한국영화데이터베이스에는 〈악의 꽃〉의 각본자가 남태권이라고 명기되어 있고 남태권의 인적사항에도 본 영화의 시나리오를 담당했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영상자료원에 보존된 녹음시나리오에는 각본(각색)자로 권호암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무서움을 유발시키는 장면 전에 등장하여 관객을 놀라게 한다. 배우 이예춘이 담당한 미치광이 과학자는 천재와 광인 사이를 오가며 기이한 실험을 수행한다. 이후에도 이예춘은 이용민 감독의 고딕SF영화에서 미치광이 과학자로 반복 출현하였다. 이 영화에서 식물학자의 실험은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비윤리적인 것이다. 중요한 점은 갈등과 악의 기원이 늘 일제 강점기에 놓여있다는 점이다.

한성대 농학부에 다니는 박영민(황해)은 애인 김현주(김지미)와 함께 저명한 식물학자 이광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외딴 곳에 저택인 흑란원에 방문한다. '흑란원'은 고딕소설에 등장하는 대저택과 같은 기능을 한다. 저택에는 식물학자 이광수(이예춘)와 할멈만이 살고 있다. 이광수의 실험실에서 구구자의 시럽(樹液)을 본 현주가 "아이 고와라. 고운 선지피 같군요."라고 감탄하자 이광수는 흠칫 놀라며 현기증을 느낀다. 이광수 박사는 유전자를 조작하여 인공적 꽃을 만들어내는 자신의 연구를 자연을 거스르는(조물주에 승리하는) 것으로 묘사한다. 염색체를 인공적으로 가감하는 그의 식물학 실험은 대단히 동물적인 인상을 준다. 튀기·혼혈을 만드는 실험이라든가, 죽은 처의 이름을 단 꽃의 이름에서 그러한 인상이 더욱 강렬하다.

식물학자 이광수는 식민지 말기인 1937년 즈음 조선의 보배로 칭송받으며 일본에 유학하였고, 성공한 학자가 되어 대영제국 식물학회의 명예회원이 되기도 했다. 과학자가 되기 이전의 과거, 그는 고향마을의 백련이라는 처녀를 사모했으나 구애를 거절당하자 우발적으로 그녀를 살해한다. 이후 그는 일본으로 건너가 농학박사가 되고, 주애리(주중녀)와 결혼하여 20년 만에 고향에 돌아온다. 고향에 돌아온 밤에 백련의 귀신이 찾아오고, 이광수는 그녀의 뒤를 따라가다가 뿌리에서 사람의 피가 흐르는 식물을 발견하게 된다. 그 꽃은 죽은 백련의 화신으로 사람의 피

를 양식으로 삼는 흡혈식물이었다. 백련은 낮에는 꽃으로 있다가 밤이면 여자가 되어 이광수를 성적으로 매혹시키며 피를 요구한다. 이를 만족시키기 위해 이광수는 밤에 마차를 타고 여성들을 납치하여 살인한다. 백련은 박사를 조종하며 그가 '괴물'이 될 것이라 말하고, 결국 이광수 박사는 결국 흡혈귀가 되어 자살한다. 박사를 찾아온 젊은 연인은 위기를 겪었지만 결국 안전하게 귀환하게 된다.

〈악의 꽃〉의 리메이크작인 〈원〉에서는 등장인물의 이름이 바뀌고 설정이 보다 자세해졌으나 전체적인 스토리는 유사하게 전개된다. 장래가 촉망되는 식물학자 창일(이순재)은 『영적 식물학의 고찰』이라는 박사논문을 위해 고향 박사(허장강)를 찾아 불당골의 '흑묘원'을 찾는다. 외딴 곳에 있는 '흑묘원'은 낡은 서양식 석조주택으로 등장한다. 옥녀(이빈화)는 낮에는 뿌리에 피가 흐르는 요염한 붉은 꽃으로 있다가 밤이면 소복에 얼굴 한 쪽에 흉터가 진 흉한 모습으로 나와 사람을 놀라게도 하고, 고박사의 앞에서는 성적으로 요염한 여성으로도 나타나기도 한다. 옥녀에게 피를 바치기 위해 밤마다 쌍두마차를 타고 여성 연쇄살인을 하는 그의 범행은 신문에도 실린다. 일제후반기가 배경이기 때문에 영화 안에 등장하는 신문기사 '屍體と 怪花の 關係? 狂人は誰か(사체와 괴이한 꽃의 관계는? 광인은 누구?)'에서처럼 박사는 '광인'으로 묘사된다.

이상에서 다룬 흡혈식물 영화들은 『드라큘라』 서사의 성적 위치를 전도시키고 있다. 전근대사회의 귀족을 위협하는 매력적 부르주아를 상징하는 드라큘라가 자본을 상징하는 피를 착취한다는 고딕소설의 설정은, 성적으로 매력적인 여성이 남성 과학자의 지식을 착취하는 방식으로 변형되고 있다. 두 편의 영화에서 흥미로운 것은 지식 탐구자인 과학자가 결국 요염한 흡혈식물에게 감염된 채 괴물이 되어가는 과정이다. 압도적 팸므 파탈이자 매혹(성적 파트너)과 공포(살인교사)의 대상으로서의

여성에 대한 남성의 공포와 복종은 B급영화로서 이 작품의 분명한 무의식을 드러낸다. 영화에서 지식(과학)은 성에 굴복한다. 괴물의 기원은 ‘과거’ 그것도 식민지 시대에 놓여있다.

두 편의 영화들은 식민지 시대의 과거회상 장면을 매우 낭만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마치 고딕영화에서 빅토리아조의 우울한 귀족의 대저택에서의 삶의 방식을 모방하는 것처럼 보인다. 여기서 식민지시대는 제국주의 양식의 화려한 번영을 제공하는 시대로 등장하고 있다. 식민지 시대라는 ‘과거’는 생명과학을 다루는 다음의 과학자 영화에서도 중요한 원한의 기원으로 등장하게 된다. 한편 위의 영화에 등장하는 흡혈의 상상력은 식물학적 범주를 벗어나 점차 ‘국적이 수상쩍고 으스스한 한국판 드라큐라³¹⁾ 영화인 <살인마>와 같은 한국형 여귀영화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에 <악의 꽃>과 <원>은 한국형 여귀 호러영화의 발전과정을 살필 때에도 흥미로운 텍스트다.

3-3. 미치광이 과학자: 억압된 것의 귀환과 가족주의

『프랑켄슈타인』의 상상력은 시체를 소생시켜 괴물을 만드는 미치광이 과학자가 등장하는 일련의 영화들을 통해 나타난다. <목숨을 판 사나이>(1966, 신현호)³²⁾는 ‘생명을 판 사나이’라는 제목으로도 알려져 있다. 영화의 심의대본과 녹음대본의 속표지에는 ‘공상괴기영화’라 되어 있어 이 영화가 SF와 호러의 혼종장르임을 알려준다.³³⁾

31) 『주간한국』 1965.8.22.

32) 영상도서관에 보유된 오리지널 시나리오에는 ‘생명을 판 사나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고, KMDb에도 ‘생명을 판 사나이’라고 되어 있으나 포스터를 보면 <목숨을 판 사나이>로 홍보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3) 영상도서관에는 총 4종류의 시나리오가 남아있다. 오리지널 시나리오(김희림 감독,

영화는 꼬추와 거인이 등장하는 고가(古家)를 그로테스크한 모습에서 비추며 시작된다. 고가의 이름은 '흑란장'으로 <악의 꽃>에 등장하는 '흑란원'을 상기시킨다. 효정(최지희)은 흑란원에 있는 연구실에서 원한을 품고 죽은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동물실험을 넘어 인체실험을 기도한다. 그녀는 죽을 수밖에 없는 불우한 환경에 처한 청년을 구출한 후 그를 시험대에 올려 괴물로 만든다. 그 괴물로 그녀는 아버지의 원수를 하나하나 복수해간다. 마지막에 그녀는 괴물이 무너뜨린 거대한 건물에 깔려 목숨을 잃는다. 프랑켄슈타인의 각색이라 볼 수 있는 <생명을 판 사나이>는 복수해 줄 아들이 없어 원통해하며 죽은 아버지를 대신한 '여성과학자'의 복수를 보여준다. 영화에서 효정(최지희)은 "직업이며 취미가 모두 정상에서 벗어난 이상세계의 생활을 하고 있는 여성"³⁴⁾으로 묘사된다. 이 영화는 이어질 일련의 '시체소생술' 영화들의 첫걸음에 놓이는 작품이다. 패턴은 이러하다. 사악한 과학자의 실험은 공익이 아니라 개인의 이해관계와 관련된다. 과학자의 실험에 대한 편집증적 몰두는 '과거'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다만 <목숨을 판 사나이>는 일련의 과학자 영화 중 여성과학자가 등장한다는 점에서 예외적 작품이다.

한국적 고딕SF영화 중 과학자영화 고유의 설정은 <목 없는 미녀>에서 그 단초를 보이기 시작한다. 이 영화는 과학자를 주인공으로 삼지 않았고 '실험'을 중요한 서사적 계기로 등장시키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곤충학자의 등장, 일제 강점기에 기원을 둔 원한의 작동과 복수의 서사라 특징은 이후 이용민이 연출한 미치광이 과학자 유형의 고딕SF영화 서사의 근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주목할 만하다. 이 영화는 '색채괴기영화',

최진 각본), 심의대본1(김희림 감독, 정찬환 원작, 강일문·이중세 각본), 심의대본2와 녹음대본에는 (신현호 감독, 정찬환 원작, 이중세 각본)으로 표기되어 있다.
34) <생명을 판 사나이>(시나리오), 17쪽.

‘괴기 취미의 추리물’로 평가되며 으스스한 효과와 컬러촬영에서 좋은 평가를 얻었다. 영화에는 이후 이용민 감독의 영화에서 ‘나쁜 과학자’의 전형으로 등장하는 이예춘이 악역으로 등장하고 있기도 하다.

영화는 현재 벌어지는 일련의 괴사건들을 통해 미스터리를 강화해간다. 복면의 사나이가 미자를 노린다. 사실 미자는 죽은 최상배의 딸이다. 과거 태평양전쟁 말기에 패전을 예상한 일본군은 만주에서 20톤의 60억원에 해당하는 황금을 조선을 통해 운반해 일본으로 가져가려고 했다. 징집을 피해 산속에 숨어있던 20대의 오윤근(이예춘)은 우연한 기회에 이들을 발견한다. 일본군 장교는 조선인 학병들로 구성된 부하들에게 황금을 춘천의 모처에 숨겨두도록 한 후 비밀을 봉인하기 위해 그들을 학살한다. 이를 피해 달아나던 학병 최상배(김석훈)는 오윤근과 그의 친구에게 구해줄 것을 요청하며, 자신을 구해주면 황금의 반을 주겠다고 약속한다. 황금을 독차지하기 위해 오윤근은 최상배와 그의 아내를 살해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가 숨겨둔 황금의 거처를 듣지 못한다. 20년 후 오윤근은 최상배의 딸을 찾아 그녀의 등에 문신된 황금의 거처를 찾아낸다. 하지만 아들 최상배의 복수를 위해 독거미를 연구하는 곤충학자 최박사(최남현)의 함정에 빠져 동굴에 갇힌 채 결국 최상배의 아내(주중녀) 귀신에 의해 죽게 된다. 다소 난잡한 설정의 이 영화는 동서양 공포물의 특징을 뒤섞어 놓았다. 원한을 품고 죽은 소복 입은 아내 귀신은 때로 양장차림에 얼굴에 붕대를 감은 투명인간으로도 등장한다. 독거미, 뱀 등을 통해 혐오감과 공포감을 준다는 점에서 거대 괴물거미 소재의 SF인 <타란툴라>(1955, 잭 아놀드)가 연상되기도 한다.

다음으로 <악마와 미녀>의 구체적 전개는 다음과 같다. 일본 의사 곤도는 간호사 미치코의 병을 치료하는 척 하면서 뇌 이식 수술 실험용으로 삼는다. 실험에 실패하자 죽은 미치코가 귀신으로 나타난다. 10년 전

조선인 임인수는 인간의 뇌를 자유자재로 이식하는 천재적 실험에 성공한다. 이를 질투한 일본인 곤도는 인수를 독살하고 시체를 약물에 넣어 녹이고 인수의 아내 한순에게 상해에서 독립군을 도와주었기에 안전하게 숨겨주었다며 거짓말한다. 인수의 딸 옥경은 어려서 지하실에 갇히게 되는데, 쥐를 생식하며 생명을 연명하다 흡혈의 습관을 갖게 되었다. 성장한 옥경은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곤도의 병원에 간호원으로 위장하여 찾아온다. 곤도와 옥경이 결정적으로 대치할 때, 죽은 미치코와 한순의 귀신이 나타나 그녀를 돕고 곤도는 염산 탱크에 빠져 죽어버린다. 옥경 역시 불길 속에서 타버리고 만다.

위 영화는 한국적 미치광이 과학자 영화의 전형이 되는 작품이다. 이 전형은 다음과 같은 특징으로 이루어져 있다. (1) 시간의 구조는 현재-과거-현재로 구성된다. 현재 특정한 음모를 품은 위험한 실험들이 반복되지만 결정적 성공에 이르지 못한다. 이 실험의 원인은 과거에 놓여있다. 이 과거는 주로 식민지 지배 기간 동안 조선인과 일본인 사이에 발생한 사건의 원한관계에 기인한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 나쁜 과학자는 실험에 성공하지만, 성공의 대가로 결국 되살려진 괴물에 의해 죽음에 이른다. (2) 뇌 이식이나 시체소생술을 통해 죽은 자의 기억을 복원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진다. 실험 재료를 얻기 위해 힘없는 자들에 대한 납치 및 연쇄살인이 벌어진다. 이 때 실험실의 분위기나 실험 방식은 『프랑켄슈타인』에서와 유사하게 전개된다. (3) 외딴 곳에 있는 산장, 병원, 대저택의 실험실에 한밤중에 처녀 간호원이 찾아오는 것이 영화의 시작점에 등장한다. 이 여성은 가까스로 희생자가 되지 않고 살아남으며 여러 위기를 겪으면서도 끝까지 자신의 순결을 지키고는 젊고 순수한 제자 과학자와의 사랑에 성공한다. (4) 희생당했던 실험의 피해자들이 죽은 후 귀신으로 다시 나타나 박사에게 복수한다.³⁵⁾

〈공포의 이중인간〉은 1961년부터 지속되어 온 이용민의 고딕SF영화 중 가장 세련된 문제적 B급 영화작품이다. 이 영화에 드러나는 불균질하고 역동적인 요소들은 서사의 난삽함을 넘어 의욕적 해석의 재료가 될 것이다.

비오는 청평 정신병원에 어느 날 밤 간호사 옥경이 찾아온다. 이 병원의 비밀스러운 실험실에는 한 여자가 누워있다. 그 옆에는 사람을 3명 죽인 광폭한 살인자의 시체가 놓여 있다. 정유식 박사(이예춘)는 살아있는 여자의 생명(영혼)을 죽은 살인자의 시체에 주입시키는 실험을 한다. 지금까지 가난한 정신병원 입원환자나 새로 들인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왔으나 번번이 실패하여 지하실에는 시체들이 즐비하다. 정유식 박사에게는 그의 일을 도와주는 제자인 의사 박군과 준호가 있다. 여자의 육체에 살인마의 영혼을 결합하려던 실험에 실패해 버려진 시체에 번개로 인한 고압의 쇼크가 가해지고 시체는 자극에 의해 소생된다. 그렇게 외모는 매력적인 젊은 여성이지만 사악한 남성 살인마의 영혼에 조율 받는 괴이한 자웅동체의 괴물이 만들어진다.

이 영화에서도 실험을 반복하는 근본 원인은 과거에 놓여있다. 태평양전쟁 말기, 패전을 예감한 일본군은 만주와 중국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은 다이아몬드를 조선을 통해 이동시킨다. 조선인 학병으로 구성된 병사들은 일본군 오노 소좌에 의해 모조리 학살된다. 가까스로 살아난 정유식 일병은 오노를 살해하나 이후 미국, 영국, 독일에서 30여 년간 의학을 배워 그의 시체를 부활시켜 보물이 숨겨진 장소를 알아내려 한다. 한편 되살아난 생사동체(living-dead)·자웅동체의 괴물은

35) 같은 것이 반복해서 회귀함으로써 무언가 이상하게 불안한 감성이 생긴다는 점은 프로이트의 소논문 『두려운 낯설음(Das Unheimliche)』에서 언급된 ‘억압된 것의 회귀’의 양상을 보인다. 지그문트 프로이트, 정장진 역, 『두려운 낯설음』, 『예술, 문학, 정신분석』, 열린책들, 2003, 429-430쪽.

여체에 남성의 의식이 주입된 것이기에 속옷을 입은 여간호사를 강간하려 덤벼들기도 하는데 이때 가학적이고도 동성애적인 분위기가 연출된다. 괴물을 제압한 정박사는 간호원 옥경의 육체를 대상으로 오노 소좌의 영혼을 부활시킬 실험에 돌입한다. 최후의 실험을 통해 오노가 살아나게 되지만, 오노가 보물이 숨겨준 장소를 말해주지 않자 옥신각신하다 정박사는 오노를 죽이고 만다. 한편 정박사가 매력적 여성인 옥경을 강간하려고 하자 고압전류를 통해 자웅동체의 괴물이 다시 살아나 정박사를 죽이고 자신도 고압선에 감전되어 죽고 만다. 결말에서 본래 약혼한 사이인 옥경과 젊은 의학도 준호가 살아서 병원을 빠져나간다. 옥경은 다이아몬드를 호수에 버리고 보물이 묻힌 장소를 평생 비밀로 하기로 한다.

이후에도 죽은 자를 소생시키려는 과학자/의사가 등장하는 영화들이 있지만 연애-불륜의 멜로드라마에 기반을 둔 원한으로 점차 기울어갔다. 이들은 1960년대 이래 집적된 고딕SF영화의 클리셰를 활용하고 있을 뿐 주제나 기법 면에서 새로움을 보여주지 못했다. 나쁜 과학자 영화는 <귀화산장>(이두용, 1980)³⁶이나 <괴시>(1980, 강범구)³⁷ 등의 영화에도 소재 상으로 영향을 주게 된다. 다른 한편 나쁜 일본인에 대한 원한은 경성 연쇄 미녀 실종사건을 다룬 <한녀>(1981, 이유섭)³⁸로 이어진다.

36) 장난스러운 연애로 임신한 간호원 경아는 의사인 한 박사에게 살해당한다. 한 박사는 이후 물리적 자극에 의해 죽은 사람도 살리는 기술을 발명하고, 부유한 아내를 만나 처갓집에서 차려준 종합병원을 갖게 된다. 그는 이후 소생한 경아에 의해 근경을 겪게 된다.

37) 한중합작영화인 <괴시>에는 초음파송신기로 인해 시체들이 살아나는 설정이 등장한다. 주인공 강명은 초음파송신기를 만든 친구를 죽인다. 흡혈귀를 만드는 초음파기계 등장하는 이 영화는 인간이 만들어낸 기계에 인간이 희생당하는 아이러니를 다루며, 환경문제, 자연보호 문제를 교훈적으로 결말에 강조한다.

38) 식민지 시대 경성, 성형수술의 신기원을 마련하려는 요시무라 박사는 젊은 처녀들을 희생시켜 실험을 지속한다. 요시무라는 전쟁터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다루면서 고도

4. 실험실에서 우주로, 과학은 소년의 것

한국적 SF영화로서 고딕SF는 『투명인간』, 『드라큘라』, 『프랑켄슈타인』과 같은 고딕소설, 동시대 미국과 영국의 B급 공포영화의 영향 하에 형성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적 특성도 분명히 지니고 있었다. 투명인간 계열 영화들은 식민지시대 형성된 ‘조선신파’적 서사구도를 차용하여 당대 인기를 끌던 장르영화의 외피를 빌어 권선징악의 구조를 만들어냈다. 흡혈과 시체소생을 다루는 미치광이 과학자 계열의 영화에서는 과학자가 식민지 시대 형성된 원한(혹은 그 당시 해소되지 못했던 욕망)을 풀기 위해 실험을 통해 반복적으로 과거를 재소환하였다. 여기서 과학자는 부정적인 인물들로 등장하고 제국주의 시대의 기억은 물질적 변영, 죄책감, 학살과 살인의 기억으로 남아있다. 문제적 작품인 〈공포의 이중인간〉에 이르면 과학자가 제국주의 일본의 군인을 부활시키려 하는데, 그 목적은 보물(다이아몬드)의 거처 즉 제국주의의 치부와 닿아 있다. 프랑코 모레티의 사유를 빌리자면 자본(지식)을 집적하고 끊임없이 프롤레타리아를 착취하던 사악한 자본가이자, 영토와 권력을 집중한 퇴행적 지식의 제국주의자인 과학자는 자신의 비밀스러운 실험실 안에 폐쇄되어 있었다.

의 기술을 체득하게 되었다. 그의 조선인 아내 정애는 요시무라의 본질을 모르는 채 병들어 죽기 전에 남편의 실험대상이 되겠노라고 하지만, 죽기 전 남편의 불륜을 목격하고는 나중에 원혼이 되어 나타난다. 한편 요시무라의 정체를 모르는 영식은 유능한 스승의 가르침을 받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열심히 공부하여 억압받는 민족을 위해 살겠다는 다짐을 하는데, 정애의 원혼이 나타나 동족은 해치고 싶지 않으니 떠나라는 경고를 듣는다. 한편 일본의 겐지 백작의 외동딸 렌코는 흉측한 얼굴을 지니고 있다. 그녀를 위해 요시무라는 죄 없는 조선의 처녀들을 데려다 산 채로 피부를 도려내 성형수술을 시도한다. 정애의 원혼과 일본의 퇴령사가 대립을 하고, 결국 요시무라 박사는 죽은 여자들에게 복수를 당해 불타 사라진다.

고딕SF영화는 과학을 도구로 삼은 지식, 권력, 자본의 정점에 서 있는 과학자의 탐욕을 부정적으로 그려낸다. 희생자는 가난한 사람들, 미치광이, 살인광, 나약한 젊은 여성들이다. 이들이 원귀, 생사동체, 자웅동체가 되어 반복적으로 부활해 과학자를 처단하는 서사 속에 사실상 그다지 계몽적 의도는 없어 보인다. 스승인 과학자(교수)를 정점으로 그의 휘하에는 젊은 남성 제자가 있다. 그에게는 약혼한 여성이 있는데 이 여성은 주로 영화에서 간호원 내지 연구보조자로 등장한다. 때때로 이 여성의 아버지도 과학자로 등장하는데 그는 젊은 남성의 공식적 스승이기도 하다. 비전(秘傳)의 실험을 수행하는 과학자(의사)-젊은 제자 과학도(의사)-연구보조자이자 연인(간호사)은 연령, 성차, 지식의 층지에 의해 계급화 된다. 외딴 곳의 대저택에서 자행되는 미치광이 과학자의 학살과 만행에서 가까스로 빠져나온 젊은 남녀는 악한 아버지(나쁜 과학자)를 처단하고 선한 아버지(착한 과학자)의 승인 하에 새로운 가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러한 서사적 변화는 광포한 근대화를 경험하는 대중들의 불안이 점차 완화되고 과학적 계몽이 보편화되면서 점차 고딕SF영화의 불온성이 순치되는 과정과 맞물린다.

1970년대 중반 이후로는 심령과학을 다루는 오컬트 영화들이 등장하는데, 이즈음에 이르면 영화는 고딕SF에서 오컬트물 이행해가게 된다. 그렇기에 과학자가 등장하는 한국의 고딕SF영화는 1970년을 정점으로 한 1960년대적 장르였다. 이 장르의 역사성이 짧았던 이유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서는 1967년 등장했던 소년SF와 1968년 이후 본격화되었던 아동 SF 애니메이션의 출현을 의미심장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주괴인 왕마기〉와 〈대괴수 용가리〉가 동시에 등장한 1967년은 한국 괴물영화의 기록적인 한 해였다. 두 편은 각각 ‘한국최초의 괴수영화’라는 홍보문구로 선전하며 경쟁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컬러시네마스코프

로 제작되었던 〈대괴수 용가리〉가 더 큰 인기를 끌었다. 미니어처로 제작된 괴수가 등장한다는 점 외에도 재치 있는 ‘소년’이 등장하여 군인·과학자와 협조해 괴물을 물리친다는 설정도 유사했다. 여기서 소년의 캐릭터에는 식민지 시대부터 이어져온 ‘뜰뜰이’라는 친근한 캐릭터가 겹쳐 보인다.³⁹⁾

예외적이었던 이 두 편의 영화는 1960년대 영화사에서 간단히 언급되거나 호러영화 연구사에서 유신시대의 레드컴플렉스와 전쟁 트라우마를 상징하는 것으로 언급되었다. 가령 백문임은 〈우주괴수 왕마기〉가 피난민 대열에서 한국전쟁을 환기시키며 왕마기가 단순히 ‘외세’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북한’ 혹은 ‘간첩’의 알레고리라 판단한다.⁴⁰⁾ 〈대괴수 용가리〉에서 방사성 원소에서 태어난 용가리가 판문점에서 최초 출현해 서울을 파괴하며 남하하다가 한강철교 목전에서 쓰러진다는 것은 분명 공산주의에 대한 공포의 반영처럼 보인다. 하지만 두 영화의 서사의 미묘한 부분들과 비일관성들, 영화와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오리지널 시나리오의 개작 과정을 검토해보면 사정은 더욱 복잡하다. 이 부분에 대한 사항은 후속 연구의 주제로 남긴다.

중요한 점은 장르적으로 1967년 즈음을 전후로 정부의 과학시책이 변화해가고 소년SF와 SF애니메이션이 등장하던 와중에 고딕SF영화가

39) 1936년 『동아일보』에 연재에 등장했던 『말썽꾸러기 소년 뜰뜰이』의 모험의 서사는 해방기 김영수, 김래성 등이 작가로 참여한 라디오드라마 〈뜰뜰이의 모험〉과 이규환의 영화 〈뜰뜰이의 모험〉(1946)으로 이어진다. 이는 이후 수차례 영화화되거나 TV드라마로 재생산되면서 전형적인 아동서사로 자리매김하였다. 본래 마크 트웨인의 『허클베리 핀』과 같은 소년 모험물을 염두에 두고 창작된 일련의 ‘뜰뜰이’ 시리즈는 이야기가 배태된 시대적 상황 내에서 모험 추리극 내지 반공방첩물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띠게 되었다. 과학자(주로 원자력과학자)가 등장하고, 첩보원들이 최첨단 하이테크적 기구들을 활용하며, 경쟁하는 체제가 더 우월한 ‘과학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에서 SF적인 요소들을 지니고 있기도 했다.

40) 백문임, 위의 책, 89쪽.

장르적 진화를 거의 멈추었다는 점이다. 이 외에 다른 유형의 한국 SF영화의 증거를 찾을 수 없기에, 성인 대상 SF영화는 이후 오랫동안 한국 장르영화사에서 사라져버린다.

1965년 청소년 대상 종합과학 월간잡지 『학생과학』이 창간되었다. 1966년 3월 제미니 8호가 우주개발 역사상 최초로 무인우주선 아제나와 우주 도킹에 성공했다. 같은 해 기술응용 촉진 기반 확충을 위해 1966년에 ‘한국과학기술연구소’가 설립되었다. 1967년 1월에는 『과학기술진흥법』이 제정되었고 4월 과학기술처가 설립되었다. 1967년 제작된 <우주괴인 왕마귀>나 <대괴수 용가리>는 과학의 현대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가던 이러한 과정속에서 등장할 수 있던 영화였다. 이후 1970년대 국내 아동전집을 통해 SF가 선보였다. 소년소녀 과학모험소설전집이나 과학소설전집이 간행되었는데, 이 시기 소개된 과학은 공포(외계인, 타자, 디스토피아)보다는 ‘진보와 발전’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⁴¹⁾ 고딕SF에서처럼 인간의 제어를 벗어나기에 불안한 것이자 불온한 목적에 악용되었던 과학과 달리 소년에게 과학은 진보, 정복, 승리의 수단이 되었다. 전율과 공포의 대상인 ‘원자력’의 시대가 가고 선망의 ‘우주’ 시대가 열린 것이다. 과학은 이제 은밀한 실험실에서 빠져나와 드넓은 우주로 개방된다. 시간은 과거에서 미래를 향한다. 과학은 소년의 것이다. 동시에 이 천진한 낙관은 1960년대 후반 이래 진행된 정권의 근대화 예찬의 울림과 조응하는 것이었다.

41) 김지영, 『1960-70년대 청소년 과학소설 장르 연구: 『한국과학소설 전집』(1975) 수록 작품을 중심으로』, 『동남어문집』 35, 2913; 최애순, 『우주시대의 과학소설-1970년대 아동전집 SF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비평』 60, 2013.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영상이 남아있지 않아 시나리오로만 검토한 작품을 [S]로, 영상이 남아있는 경우를 [F]로 표기하였음

〈투명인의 최후〉(이창근, 1960)[S].

〈악의 꽃〉(이용민, 1961)[S].

〈목숨을 판 사나이〉(혹은 ‘생명을 판 사나이’)(신현호, 1964)[S].

〈목없는 미녀〉(이용민, 1965)[F].

〈우주괴인 왕마기〉(권혁진, 1967)[F].

〈대괴수 용가리〉(김기덕, 1967)[F].

〈악마와 미녀〉(이용민, 1969)[S].

〈투명괴인〉(이규용, 1969)[S].

〈원〉(남태권, 1969)[F].

〈공포의 이중인간〉(이용민, 1974)[F].

〈반수반인〉(김기, 1975)[S].

〈한녀〉(이유섭, 1981)[S].

〈투명인간〉(김기충, 1986)[F].

2. 논문과 단행본

김근배, 『과학기술국의 해부도-1960년대 과학기술 지형』, 『역사비평』 85, 2008, 236쪽.

김미현 편, 『한국영화사』, 커뮤니케이션북스, 2006, 169-171쪽.

김지영, 『1960-70년대 청소년 과학소설 장르 연구: 『한국과학소설 전집』(1975) 수록 작품을 중심으로』, 『동남어문집』 35, 2013.

문만용, 『1960년대 ‘과학기술 붐’: 한국의 현대적 과학기술체계의 형성』, 『한국과학 사회학지』 제29권 1호, 2007, 69-70쪽.

박상준, 『21세기, 한국, 그리고 SF -SF문학의 개괄과 한국적 SF의 반성』, 『오늘의 문예비평』 59, 2005.

박창선, 『90년대 이후 한국 SF영화의 경향성 연구: 한국적 SF영화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백문임, 『월하의 여곡성』, 책세상, 2008, 89-98쪽.

수전 헤이워드, 이영기 외 역, 『영화사전』, 한나래, 2012(개정판), 307-323쪽.

이성희, 『1970년대 한국 SF애니메이션 연구: 한국사회의 근대적 욕망에 대한 소망충

- 죽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이의경, 『한국 SF영화에 대한 고찰 : 2000년대 한국 SF영화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이정아, 『소년의 근대와 모험, 기획된 표상 : <플롤이의 모험>과 <플리장군> 시리즈를 중심으로』, 『문화연구』 2권 2호, 2013.
- 임종기, 『SF부족들의 새로운 문학혁명, SF의 탄생과 비상』, 책세상, 2004, 19쪽.
- 장연이, 『<플리장군>에 반영된 반공적 이데올로기 이미지 표현에 관한 연구』, 『만화 애니메이션연구』 15, 2009.
- 정연재, 『포우와 미국 고딕소설의 전통』, 『근대영미소설』 제13집, 1호, 2006, 241-243쪽.
- 정종화, 『한국영화사』, 한국영상자료원, 2008, 140-143쪽.
- 조미라, 『한국 장편 애니메이션의 서사 연구』,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 조미영, 『한국 SF영화에 나타난 환상성 연구 : 2000년도 이후 SF영화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 조해진, 『한국 판타지영화의 시대별 양상과 특징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17, 2011.
- 지그문트 프로이트, 정장진 역, 『두려운 낯설음』, 『예술, 문학, 정신분석』, 열린책들, 2003, 429-430쪽.
- 최애순, 『우주시대의 과학소설-1970년대 아동전집 SF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 과비평』 60, 2013.
- 프랑코 모레티, 조형준 역, 『공포의 변증법』, 새물결, 2013, 23-62쪽.
- 허인욱, 『한국 애니메이션 영화사』, 신한미디어, 2002.
- 허지웅, 『망령의 기억: 1960-1980년대 한국공포영화』, 한국영상자료원, 2010, 55-63쪽.
- David Seed, *Science Fiction; A Very Short Introduction*, Oxford Univ. Press, 2011, 1쪽.
- Steve Neal, *Genre and Hollywood*, Routledge, 2000, 36-38쪽.

Abstract

Mad Scientist's Laboratory and Imperialistic Nostalgia – The Study of Korean Gothic SF Films in the 1960s

Song, Hyo-Joung (University of Seoul)

It is very difficult to distinguish the “unique” SF films in Korean film history. Once they were in a decided minority. In addition, for a long time SF films were regarded as a exclusive property of the child. This article deals with the origin, emergence and development of the Korean SF films in 1960s. In this study, I have concern about Korean SF films by and large from 1960s to early 1970s. The objects of study are placed from the first Korean SF *The Last Invisible Man* (1960) to *Scary Double Human* (1974). These films have revealed a gloomy laboratory of a lunatic scientist in common. The event usually occurs in a remote mansion, villa or hospital. I called them “Korean Gothic SF” films. Under the influence of horror films of United States and Britain exploited films in late 1950s, new Korean genre films began to be made. At first, they imitated a little bit of *The Invisible Man* (1897), *Dracula* (1897), *Frankenstein* (1818). At the same time, they applied the Korean motives, for example tear jerker narrative (Sinpa, 新派), adventure story of anticommunist boys and resentment-revenge story. Sometimes imperialistic nostalgia was reflected in the Gothic SF films. They were a cinematic reaction to the atmosphere of the Third Republic in Korea that was accustomed to order and standardization. It turned out through the negativity, sadism, melodramatic excess and grotesquerie. Although there were scientists handling modern science for example botany, medicine, life sciences, Korean Gothic SF films are characterized by regressive moral emotions and resentment which dates back to the colonial era. When it was in the early 1970s, gothic SF film had faded and occult films for adult and animations for children began to appeared. So Korean Gothic SF films were obviously the style in 1960s.

(Key Words: Korean genre film, gothic SF, gothic novel, The Invisible Man, vampire plants, mad scientist, colonial period, imperialistic

308 대중서사연구 제20권 3호

nostalgia, madness, return to the repressed)

■ 위 논문은 2014년 10월 30일 투고되었고, 심사를 거쳐 11월 30일 게재가 확정되었음.